

5·18 40주년 문화로 만나다

같은 사건 다른 시각... 영화로 풀어낸 5·18과 광주정신

‘올해의 직장인 필독서’ 교보문고, 근로자의 날 맞아 선정

<2>광주브랜드영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5·18, 광주정신 등 주제 영화 제작 전국 공모 장편 3편·단편 8편 선정 안성기 출연 ‘아들의 이름으로’ ‘광주정신 특별 다큐멘터리’ 등 5월 15일 발표회 후 온라인 상영



광주브랜드영화에 선정된 11편의 영화가 오는 5월 15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상영된다. 사진은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 (왼쪽)와 ‘정하게 이베네’ (아래) 촬영 모습.



1980년 5월 이후 문학, 연극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추모하고 기념해 왔다. 영화계에서도 5월 광주를 담아내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그 동안 영화 ‘꽃잎’, ‘박사사탕’, ‘화려한 휴가’, ‘택시운전사’ 등 오월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스크린에 울랐으며 특히 올해는 안성기, 윤유선 주연의 ‘아들의 이름으로’가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광주시와 함께 5·18 40주년을 맞아 ‘광주브랜드영화’를 제작·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전국화, 세계화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됐으며 6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총 11편의 영화를 지원했다.

진흥원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광주 5·18 민주화운동, 광주정신, 광주의 맛과 멋 등을 주제로 한 영화를 대상으로 전국 공모를 실시했다.

‘광주 브랜드 영화’ 사업 공모에는 다큐멘터리 등 장편 3편·단편 8편 등의 영화가 선정됐으며 광

주를 비롯해 서울, 창원, 전주, 춘천, 창원 등에서 활동하는 감독들이 각기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5·18을 영화에 풀어냈다.

특히 장편 영화 제작지원에 선정된 이정국 감독의 ‘아들의 이름으로’는 국민배우 안성기, 윤유선, 박근형 씨 등의 출연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영화계에서 화제를 모았다. 이 작품은 전직 공수부대원이 죄의식에 시달리다 반성하고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해 하반기 크랭크인했으며 유스퀘어, 무등산 등 광주 전역에서 촬영했다.

최진실·박신양 주연의 영화 ‘편지’의 메가폰을 잡기도 한 이정국 감독은 지난 1991년 5·18을 다룬 최초의 극장용 상업영화 ‘부활의 노래’로 데뷔했다. 이후 5·18 소재 단편 영화 ‘기억하라’와 장편 영화 ‘반성’ 등을 제작하며 5·18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경남 창원 상남영화제작소의 뮤지컬 영화 ‘썩! 썩! 썩! 썩!’은 영·호남 합작 뮤지컬 영화로 조영 받고 있다. 오세영 만화가의 ‘부자의 그림일기’ 중

5·18 당시 공수부대원으로 광주에 내려와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청년의 트라우마를 담아낸 만화 원작을 모티브로 했다. 영화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 ‘오월의 노래1·2’, ‘고백’, ‘포장마차’, ‘선을 넘는다’, ‘진혼곡’, ‘광주출진기’ 등 8곡이 삽입된다.

춘천 출신 남미숙 감독의 다큐 ‘5·18 춘천’은 5·18 당시 춘천의 상황을 묘사해 5·18을 평화하는 춘천 지역에 경종을 울린다.

지난 2015년 ‘위로공단’이라는 다큐로 한국인 최초로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한 임흥순 감독의 다큐 ‘좋은 빛, 좋은 공기’도 기대를 모은다. 광주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일어난 국가 폭력의 실상을 발굴·복원하는 내용이다.

이조훈 감독의 장편 다큐멘터리 ‘광주 비디오’는 국내·외 5·18 관련 자료를 발굴하는 작업을 담았다.

이밖에 ‘중려의 오월 (가제)’ (박영이), ‘정하게 이베네’ (정경희), ‘방 안의 코끼리’ (김고은), ‘개그맨’ (박기복), ‘또 하나의 518, 527’ (김종관),

‘광주 정신 특별기획’ (김귀련) 등이 5월 광주를 담았다.

진흥원은 당초 5월 16일~6월 30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서울과 부산에서 특별상영전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무산됐다. 대신 작품들을 16일부터 서울시와 공동으로 온라인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며 이에 앞서 오는 5월 15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제작 발표회 겸 시사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날 발표회에는 안성기, 윤유선 등 배우들을 비롯해 영화감독, 광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교보문고(대표 박영규)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맞아 ‘2020 올해의 직장인 필독서’를 선정했다.

이번에 8회째를 맞는 ‘올해의 직장인 필독서’는 지난 1년간 교보문고의 회원제 서비스 ‘북모닝’ 정회원 1만여명이 읽은 책 가운데 가장 많은 공감과 지지를 받은 책을 북멘토와 함께 심사해 선정했다.

선정된 책은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혼자가 혼자에게’, ‘부의 지도를 바꾼 회계의 세계사’, ‘멀티팩터’,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제로 편’ 6종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뉴 노멀’→‘새 기준, 새 일상’ ‘웨비나’→‘화상 토론회’

새말모임, 우리말 대체어 선정

‘뉴 노멀’과 ‘웨비나’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새 기준, 새 일상’과 ‘화상 토론회’가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을 가리키는 ‘뉴 노멀’을 ‘새 기준, 새 일상’으로, 웹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뜻하는 ‘웨비나’는 ‘화상 토론회’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립국어원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의견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이 같이 결정했다.

한편 새말모임은 어려운 외국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대체어를 제공하기 위해 국어 전문가 외에 외국어, 교육, 홍보, 언론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위원회로 SNS를 통해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5·18 독립영화관’ 13편 선보인다

5·18민주화운동행사위, 5월 6일부터 유튜브 상영 ‘임을 위한...’ 리메이크 공모, SNS인증 이벤트도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 상임위원장 이철우)는 5·18 40주년을 맞아 ‘5·18 독립영화관’을 운영한다.

‘5·18 독립영화관’은 5·18 관련 영상물 13편을 5월 6일부터 31일까지 행사위 공식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에서 출품한 극영화 6편, 다큐멘터리 6편, 단편 필름 1편 등을 선보인다.

상영작은 ‘국광교회’ (모현신), ‘외롭고 높고 쓸쓸한’ (김경자), ‘광인’ (유수안) 등 장편 3편과 ‘망

월동행 25-2’, ‘오월을, 찾자’, ‘실종’ (이상 박성배), ‘레드브릭’ (박효선), ‘그날’ (조재형), ‘광주 항쟁의 유산’ (신은정), ‘괜찮아’ (유수안), ‘꽃피는 철길’ (김래원), ‘육상자국’ (양주연), ‘불날’ (오재형) 등 단편 10편이다. 5·18 행사위는 영화관람 후 행사위 홈페이지에 후기를 작성해 올린 관람객 30명을 선정해 2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사위는 2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국내외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5·18 대표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 커버 컨테스트 공모를 실시한다. 이 곡을 트로트, R&B, 힙합, 일렉, 국악, 발라드 등 모든 음악 장르로 리메이크 한 3분 내외 분량의 영상물을 제작하고 참가신청서와 함께 행사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6월 1일 선정자를 발표하며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이밖에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5·18기념 배지 패용 모습과 5·18사적지 방문 인증사진을 찍어 SNS에 게재하면 기념품을 수여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인-떠도는 땅’

Advertisement for Beltone hearing aids, featuring logos, award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locations.

Advertisement for Bentley Hotel, highlighting various events and services,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room types.